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도깨비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자신은 도깨비를 못 봤는데 말이 도깨비에 놀라서 넘어진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도체빌. 옛날엔 잘 나나네. 저 우리 수춘 오라방이. 온평리서 살멍 신산리 간에 간스메 공장을 헨이. 그때 왜정 때난 간스메공장을, 고동 받으멍 간스메공장을 헨 보네는다. 캔이엔 헤도 이젠. 간스메엔 허주 그땐게. 고동 잡아그네 일본 보내민 일본서 그거 놔그네. 제조헤그네. 깡통 요만헌 헌. 애기덜 우유 깡통덜 요 만헌 깡통에 담양. 이젠 또 조선더레 풀레 내려오주. 거 만들아 놓. 풀레 내려오 민 이디서. 거 고급 사름이나 먹었주. 아무나 먹지도 안 허고. 비싼 거난. 겟 헨 헌 거. 그 공장을 허나네.

“도체비 나그네. 누게 도체비 미천 어디 가 씨러졌저. 구렁치러레 담아비였저 허 민. 거. 나도 도체비 혼 번 봐이민 좋으켜. 도체비가 어떻헌 거라? 도체비사 못 이 겨. 그거 불 베롱헨 돌아댕기는 거. 그것사 못 이겨그네. 경 어디 강 박아불곡. 무 시거 허곡. 허런.”

경 행 장담 소릴 헷어. 장담 소릴 헣다. 그날 주忸이 어둑은 디 신산릴 간 거라 이. 신산일 가나네 물 탄 가는디. 그땐 차가 엇인 때난 자가용이 물이주이. 타는 물 행 타는 거. 타는 건디 그 물을 탄에 그 공장엘 가는디. 아. 물이 그냥 성창더레 가 부는 거라이. 성창에 가난 물이 걸어저게. 둘도 엇인 밤이난. 그냥 그디 강 짹 박아 전. 성창에 가나네. 물이 걷지 못허나네 그자 박아지나네. 물 아래 털어지난. 물석 은 이디 영 헤영. 마음 물류민 물석은 영. 짹 심으문 무시거 헌 사름은 그거 내불민 물 돌아나불카부덴 죽어지지 안 허는 동안은 그거 물석을 심어야 그거를 심을 거 난. 그거 짹 심엉 아레 털어전 이젠. 일어나난 물도 일어나고. 사름도 일어나고 헤 연 보난. 성창에 아져당 박아벳어렌. 원 그날 주忸 당장 아져당 도체비 미천. 물이. 도체비 잘 놀레주. 물은.

- 핵심어 : 도체비, 물, 성창, 불, 밤, 간스메(통조림), 온평리, 도깨비, 말